



미용과학과 08학번

문소희 졸업생

소속: 광주여자대학교

직위: 조교수

Q1.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시작한 진로가 지금의 교수님으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미용을 진로로 정했고, 미용을 전문적인 학문과 직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모교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여러 대학에서 교육경험을 쌓고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현재는 모교인 광주여자대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Q2. 미용 전문가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도전은 무엇인가요?

미용 분야 최고 수준의 국가기술자격인 미용기능장 취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며 여러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일곱 번째 도전 끝에 합격했습니다.

Q3. 교육뿐 아니라 연구와 전문활동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이어오고 계신데요.

KCI 학술지에 논문 20편 이상을 발표하고 『미용통계학』을 비롯한 미용 관련 저서 11권을 출간하는 등 연구와 저술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미용사 및 컬러리스트 기사·산업기사 감독위원으로 활동하며 미용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Q4. 학술 분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총무이사, 한국한류문화학회 부회장, 국제보건미용학회 부편집위원장, 한국의류산업학회 교육전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용뿐 아니라 한류문화, 보건미용, 의류산업 등 인접 분야와의 학술적 교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Q5. 교수님께 광주여자대학교는 어떤 의미인가요?

광주여대는 제가 전문 미용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 곳이자, 이제는 교수로서 후배들의 꿈을 키우고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삶의 중요한 터전입니다. 광주여대에서 학사·석사·박사과정을 거쳐 연구자와 미용기능장, 교수로 성장한 과정 자체가 우리 대학 미용교육의 우수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Q6. 앞으로의 목표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앞으로도 교육·연구·산업현장을 연결해 학생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광주여대 미용교육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후배들도 조금 늦더라도 자신의 가능성을 먼저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자신만의 전문성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